

20호 2019년 07월 15일

발행인:박재한 / 편집인:김동석 / 편집:박시은 / 편집, 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58 9060 0962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apto, Jakarta Pusat



재인니한국봉제협회(KOGA)는
29대 박재환회장을 이어 30대 안창섭회장이
주인되어 지난 9일부터 공식적인 재인니 봉제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朝泰
Vol. 20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제 30대 재인니 한국봉제협회 안창섭 회장 주인

재인니한국봉제협회(KOGA)는 29대 박재환회장을 이어 30대 안창섭회장이 주인되어 지난 9일부터 공식적인 재인니 봉제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박재한 회장은 재인니 한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29대 임기를 일부 남기고 차기회장의 체제로 이어가게 되었다.

신임 안창섭회장은 재인니 한국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으로 한인기업의 애로와 현안에 대해 오랫동안 큰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재인니 한인봉제협의회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봉제기업의 실태와 현안을 속속 들이 꿰뚫고 해결해 나가는 발군의 능력으로 봉사해 왔었다.

다가오는 9월 재인니봉제협회 골프대회때 제 30대 회장 취임식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내 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봉제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무부, 법인세 인하 정책 연내 실현 불가능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법인세 인하 계획이 연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20%로 낮출려면 조세기본법 차법(KUP) ‘2007년 제28

호’를 개정해야 되는데, 의회 심의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인베스 툴 데일리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로버트 세

무 국장은 “법인세 20%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이다. 하지만 올해는 무리이다”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앞서 법인세 인하로 세입 총액이 87조 루피아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인도네시아 과세분석센터(CITA)의 유스티누스 빼라스 또워 이사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필리핀이 30%, 미얀마 25%, 라오스가 24%, 말레이시아 24%, 태국·베트남·캄보디아가 20%, 싱가포르가 17%이다

자카르타 주요 도로 훌짝제, 시간 연장 제안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의 자카르타 수도권 교통운영국(BPTJ)은 자카르타의 주요 도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 진입 규제 방법인 훌짝제의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지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평일 오전 6시~10시와 오후 4시~8시 총 8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진언하고 있다.

현재 훌짝제 대상 구간은 ◇메단 브르데까 바랏(Jalan Medan Merdeka Barat)

◇땀린(Jalan MH Thamrin)

◇수디르만(Jalan Jenderal Sudirman) ◇S 빠르만 일부

(Jalan Jenderal S Parman, 슬리피 교차로부터 또망 교차로 까지) ◇가酡 수브로또(Jalan Gatot Subroto) ◇MT 하르요노(Jalan Jenderal MT Har-yono) ◇DI 팬자이판(Jalan DI Panjaitan) ◇아흐맛 야니(Jalan Jenderal Ahmad Yani) ◇HR 라수나 사이드(Jalan HR Rasuna Said) 거리다.

BPTJ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훌짝제 시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자카르타 주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에는 시간 연장만

이 포함되며 대상 도로의 확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훌짝제 규제는 주지사령 2018년 제155호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연장 시행 중이며,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특별 주지사는 지난 1월 “차량 훌짝제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훌짝제 규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남미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아니스 주지사는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대한 글로벌 이미현팀장 근로자날 기념, 한국 노동부장관상 수상



지난 15일 대한 글로벌 이미국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게
현팀장은 근로자날 기념, 한 되었다

이날 수상은 대사관에서 있었으며 안창섭 수석부회장과 김은미 노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기여한 노동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 포상은 1975년부터 매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18년까지 총 17,063명을 포상했고 2018년에는 총 205명을 포상했다.

한세실업, 인도네시아 스마랑 한인회에 책 기증



▲ 유성천 한인회장(왼쪽)과 백종주 한세실업 인도네시아 법인장과 유성천 스마랑 한인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종주 한세실업 인도네시아 법인장과 유성천 스마랑 한인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 도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구입이 어려운 어린이용 도서 시리즈 가운데 스마랑 한인회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세계 명작 문학 전집, 한국사 및 세계사 시리즈 등이

포함됐다. 한세실업은 현지 교민들의 여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바둑판과 바둑알 세트도 후원했다.

백종주 한세실업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앞으로도 현지 교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인도네시아에 3개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3천 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미국 등 8개국에 18개 법인, 5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섬유업체협회, 섬유 하류산업 기계 개·보수에 100조 루피아 필요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는 섬유 하류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천 대의 생산기계 개·보수를 위해 100조 루피아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기계의 노후화로 제품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API의 아데 회장은 “정부는 상류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 수입 제품의 유입으로 하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생산기계 쇄신 지원 프로그램 재개와 직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하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섬유 하류산업의 생산기계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연간 약 1,000억 루피아의 예산을 할당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16년 이후부터 취소

됐다. 아데 회장은 “내년에는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섬유·섬유제품(TPT)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32억 2,000만 달러이었다. 아데 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 조약의 조기 비준 촉구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국제 노동기구(ILO)가 지난달 21일 채택한 괴롭힘 금지 조약을 환영하고 정부에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6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무하마드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장관도 지지를 표명했지만 비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동 조약은 당사국에 <1>직장 내 폭력이나 성폭력을 예

장은 “올해는 칠레와 호주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하기 때문에 수출액은 142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PRT)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은 2017년 약 355건에서 20% 증가한 427건으로 나타났다. Jala PRT 리파씨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도 ILO의 협약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비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방하고 대처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 <2>시행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축·강화 <3>피해자를 구제·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체계를 확립 – 등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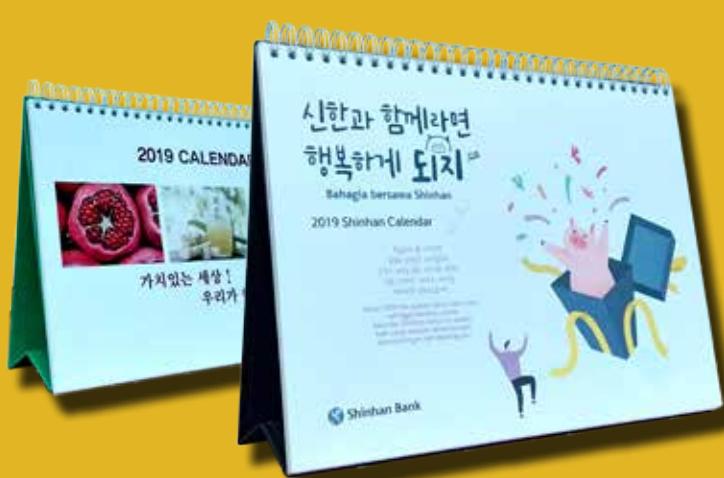
국내노동자권익보호청(Jala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0(庚子年)년을 준비하세요!

2020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고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의뢰는 : 0858 9060 0962, 021 3002 9090 / 91 입니다

유니클로, 세아와 거래단절 '강수' 악화일로 韓·日 관계 섬유 교역에도 불똥 트나?

세아가 공급한 폴라폴리스 제품 품질 불량 이유
클레임 제기 관행 달리 거래 끊는 초강수 이례적
도레이, 잠재권축사 2천톤 원단생산 한국엔 이삭만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양국 간 섬유 교역에도 불똥이 떨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SPA 브랜드인 일본 유니클로의 최근 행보에서 원단과 완제품의 주 공급선인 한국 기업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이같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도 문제와 위안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괴이자 일본 측의 한국 기업 견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유니클로가 한국 거래선에 대한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니클로와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의 최대 의

류 벤더인 세아상역을 향해 유니클로 측이 최근 거래 관계를 단절시킨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세아상역은 수년 전부터 유니클로에 연간 1억 달러 가까운 의류를 공급해왔으나 유니클로 측이 이같은 대량 거래 관계를 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니클로가 한국의 1위 벤더인 세아상역과 거래를 단절한 원인은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제작 완료해 공급한 폴라폴리스 원단 소재 의류에서 둘이 빠지는 염색 불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클레임 제기와 함께 사실상 거래 종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며 재생산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래 관

계는 유지해왔으나 최근처럼 폴라폴리스 의류 제품 클레임을 계기로 거래를 완전 중단하는 사례는 없었기에 혹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의 성안이 수주해 성안합섬에서 생산된 폴리에스테르 잠재권축사를 사용해 한국 환편 업체에서 편직한 다음 세아상역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여성용 패션바지가 올 여름 시즌 일본에서 크게 히트하자 이에 따른 후속 오더로 한국의 도레이 첨단소재에 2000톤의 풀달 잠재권축사를 오더해 이를 사용해 국내와 베트남 편직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풀달 잠재권축사 소재 여성용 패션바지 원단은 야드당 200g을 기준할 경우 무려 1000만 야드 규모에 달한 대량 오더인데 발주처인 유니클로의 소재 공급선인 일본 도레이가 한국에는 560톤 규모만 배정하고 1500톤에 달하는 대형 물량은 베트남의 삼일비나에 발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단은 10개월에 나눠 베트남 소재 봉제 소싱공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한국 내 환편 업체 설비능력으로 봄 국내 생산여

건이 충분한데도 굳이 한국에는 이삭만 남기고 베트남으로 오더를 집중한 배경도 국내 업계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섬유업계에서는 "일본 유니클로 최고 경영진이 한국에 오더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나온 지 오래이어서 세

아와 거래단절과 잠재권축사 원단 배정에 한국 업계를 훌대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래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터무니없는 주장을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한국에서만 2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유니클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기도 했는데 소문의 진위여부에 따라 자칫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섬유신문

위자야 까르야 등 국영 3사, 수방군에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위자야 까르야(PT Wijaya Karya, WIKA)와 국영 농장 회사 2개사 등 총 3개사가 서부자바주 수방군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WIKA의 사업 경험과 농장회사 2곳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한다. 2021년 완공이 목표이다.

WIKA는 3일 브루그부난 누산따라 8(PT Perkebunan Nusantara 8, PTPN8), 라자 윌리 누산따라 인도네시아(PT Rajawali Nusantara Indonesia) 등 농장회사 2개사



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단 외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넓이는 1만 1,000헥타르 이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PTPN8의 외부 사장은 "회사가 이 중 6,127헥타르 토지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했다. 외부 사장은 이어 "회사가 소유한 농지 11만 3,000헥타르는 농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다"라며 "공단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토지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방군은 엔차관으로 건설 중인 빠른 반 항구와 수도 자카르타와 반동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의 인프라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인근에는 6월에 공용 개시한 마찰렝까군의 끄르따자띠 신국제 공항과 짜빨리 고속도로도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내년 전기요금 인상 방침 변함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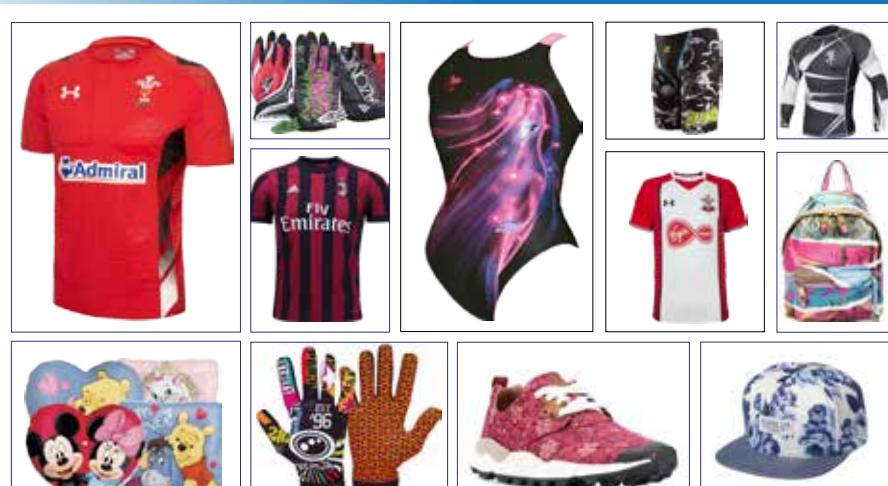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내년에 일반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지난 3일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가와 루피아 환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을 검토하기 위해 '변동제'를 다시 도입하고, 연내에는 현행 요금을 동결한다. 보조금 대상 외의 전기요금은 현재 일반 가정, 산업, 정부 기관 등 12개 범주로 구성

되어 있다. 1㎾h(킬로와트 시) 당 전기요금은 계약 구분에 따라 997~1,467루피아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국의 리다 국장은 "계약 용량이 900V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을 변경할지 여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 계약수는 2,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요금의 개정은 정부의 전력 보조금 삭감을 목표로 한다. 금년도 예산의 전력 보조금은 65조 3,200억 루피아로,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와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차기 회계연도 보조금을 약 7조 루피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한-인니 외교부 장관 면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논의

인도네시아 장관, 수도 이전 계획 언급하며
“양국 협력 잠재력 크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만났다.

한국 외교부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렉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증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 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국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측 노력을 설명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간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렉노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한국의 세종시 건립 경험 공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렉노 장관은 이달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특징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많은 기업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5,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2)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3) 설득력이 높으므로 기업이미지와 홍보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개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김재훈의 세무상식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 BM) 및 소득세(PPh22)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김재훈 대표

I. 고급주택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PPN BM) 관련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86/PMK.010/2019)

증전과 세율은 20%로 동일하지만 종별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는(Non strata title) 주택 및 타운하우스는 2백억 루피아 이상, 종별 소유권이 구분되는(Strata title)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는 1백억 루피아 이상 적용되는 규정에서 Non strata title 및 strata title 구분없이 고급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및 이와 같은 고급 주거건물로써 판매 가격 3백억 루피아 이상으로 변경됨.

2019년 6월 11일 발효

II. 수입물품 및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PPh22) 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령 개정안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92/PMK.03/2019)

1조

(2항) 고급사치품이란

- a. 개인 비행기와 개인 헬리콥터
- b. 크루즈, 요트 및 이와 같은 것
- c. 주택 및 토지로써 판매□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400m² 이상인 것
- d. 아파트, 콘도미니엄 및 이와 같은 것으로써 판매□교환 가격이 3백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축면적이 150m² 이상인 것
- e. Sedan, Jeep, Sport Utility

Vehicle(SUV), Multi-Purpose Vehicle(MPV) 형태의 10인 이하 4륜 자동차로써 판매 가격이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3,000 CC 이상인 것

f. 이륜 및 삼륜 자동차로써 판매 가격이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250 CC 이상인 것

(3항) 소득세법 제22조 (1). C.의 원천징수자란 고급사치품으로 분류된 재화를 판매하는 법인 납세자이다.

2조

(1항) 상기 1조의 원천징수자는 고급사치품을 판매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항) 원천징수 소득세는

– 상기 1조 2항 c 및 d는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n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1%

– 상기 1조 2항 a, b, e 및 f : 부가가치세(PPN)와 특별소비세(PPnBM)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 가격의 5%

(3항) 상기(2항)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고급사치품을 구매한 납세자의 당해 연도 소득세 납부액으로 계산한다.

2019년 6월 19일 발효 <끝>

학력 및 경력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기술혁신, 섬유의류 제조 혁명 이끈다

Industry 4.0 시대, 유연한 AI 지능적 제조 전환
ITMA 바르셀로나, 45개국 1717개사 참가 신기종



'ITMA 바르셀로나' 전시회를 참관한 한 전문가는 수년 동안 섬유산업의 트렌드와 도전에 맞춰 섬유기계도 진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전체 섬유의류 생산 체인에 대한 섬유 통합 소싱 플랫폼을 제공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플랫폼을 재발견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통합의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Industry 4.0과 지능적이고 유연한 제조공정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혁신이 섬유 및 의류 제조에 혁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섬유 및 섬유기계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디지털화는 수십 년 동안 우리산업에 직면한 가장 큰 기회일 것이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Innovating the World of Textiles'에 반영되었고, 특히 ITMA 2019는 로봇 및 인공지능이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스마트 의류 기술'을 주목했다.

1951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68주년을 맞이한 '제18회 ITMA 2019 국제섬유기계전'이 유럽 섬

유기계협회(CEMATEX) 9개 회원국(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중 하나인 스페인 바로셀로나 Fira De Barcelona, Gran Via에서 지난달 20~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각 전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에 따라 섬유기계 별 모든 프로세스에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즉, 자재에 생산 판매, A/S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선보였다.

섬유, 원사, 직물 부분에서는 항상 천연섬유, 산업용 섬유 및 재활용 섬유들이 스마트 패브릭, 보호 의류 및 지오텍스타일과 같은 새로운 용도를 계속 찾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기계들이 각각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편성기 분야에서는 완벽한 핏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디지털 최적화 공정과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3D 편성 기술에서부터 복합재료에 사

용되는 편물 생산을 한 다축 편성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됐다.

의류제조 분야에서는 자동화 및 로봇 공학을 이용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의류제작 솔루션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산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마이크로 팩토리를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두 각을 나타내는 '주문형 생산'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프린팅 분야는 더욱 엄격한 새로운 환경 규제에 직면하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염료와 화학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기계들을 내놓고 있다.

또 증가하는 탄소복합재료 등 혁신적인 소재의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첨단 제조기술의 제시와 리사이클링 및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북한, 차기 유망 소싱국가 될 지 관심집중 평균 임금은 중국의 절반 수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있다는 소식에 북한이 차기 저임금 소싱 국가가 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대북경제제재가 '민간 경제와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특히 섬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자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섬유전문매체 소싱저널에 따르면 북한 섬유산업 규모는 2016년 7억 2500만 달러(8379억 5500만원)를 기록했고, 북한 경제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섬유에 대한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북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급회사 중에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주로 판매하는 기업은 북한이 지정학적 위험을 무릅쓸 만큼 매력적인 곳이라고 판단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임금이 저렴한 국가 중 하나로, 임금은 중국의 절반 수준이고 일일 생산성은 중국보다 30% 높다. 북한 노동자는 장시간 혹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노예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북한 노동자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017년에 발행된 인권감시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체계적으로 일반 시민을 강제 노동력으로 써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을 적용한 후 수입 대수가 2014년 6,000만 대에서 2017년에는 1,100만 대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印尼 정보통신부, TV 수신기의 현지 조달 비율 최소 20%로 규정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등을 수신하는 TV 수신기의 현지 조달 비율을 최소 20%로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통신 기기의 기술 기준에 관한 정보통신장관령 '2019년 제4호'를 6월 25일자로 제정, 28일자로

공포했다. 8일자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동령은 2세대 지상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TV와 전용 투너 셋톱박스(수신기=STB), IP(인터넷 프로토콜) TV STB에 대한 현지 조달 비율을 최소 20%로 규정했다.

산업부 금속·기계·교통·전자(ILMATE)국의 자누 전자통신 산업 과장은 "액정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며 "TV 다음은 노트북의 현지 조달 비율을 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의 경우 현지 조달 비율 규

PT. KARY INDOMAS ELOK

인도네시아 모피산업의 선두주자 !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Jl. Mitra Selatan II Kav. 89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62 267) 440681-5 Fax. (+62 267) 440686

Contact person

Mr. Baek.K.S E-Mail : dolphin0524@gmail.com
Mr. ADE NENDA HP : +62 857 183 95894
E-Mail: ade.nenda@yahoo.co.id

Polyester BOA

- SOL SDF FABRIC
- SOL MICRO FABRIC
- SOL BR PUB FABRIC
- SOL FDF FABRIC
- BK BOA FABRIC
- BOA PRINTING

Polyester EF & VEL BOA

Available in 2,5mm and various colors
Available in special finishing such as Astra, Mogul and Snail .

‘훈마’ 가 만들면 골프의류도 명품?



▲ 훈마골프가 선보인 2019년 가을겨울 골프의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훈마 갤러리에 가면 볼 수 있다. [사진 훈마골프코리아]

훈마골프, 한국 골프의류시장 진출 35~45세가 선호할 디자인, 기능 ‘눈길’

일본의 장인이 만드는 명품 골프클럽으로 유명한 훈마골프가 한국 골프의류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편하고 멋진 골프의류로 4조 원 대로 뎁치가 훌쩍 커진 한국 골프의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훈마골프 한국지점은 최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올 가을·겨울 선보일 ‘2019 F/W 컬렉션’ 행사를 열고 골프의류 신제품을 공개했다. 프리미엄 라인인 ‘블랙 라벨’과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레드 라벨’, 골프 외 스포츠나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화이트 라벨’ 등 세 가지 스타일이다. 훈마골프웨어는 강남구 삼성동 훈마 갤러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전국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유통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신상품은 35~45세의 골퍼들이 선호하는 블랙, 화이트를 기본 색감으로 디자인했고, 방수·보온·신축성 등의 기능성을 키운 게 특징이다.

훈마골프 어페럴은 이번 론칭을 계기로 프로 선수 후원에도 나선다. 우선 배윤호 KPGA 프로, 박유미 KLPGA 프로 등이 훈마골프 의류를 입는다. 한택 훈마골프코리아 이사는 “어페럴 출시는 훈마의 60년 역사에 이어 600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 파트너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롯폰기에 본사를 훈마골프는 2011년에 한국지점을 설립했다.

이노베이션랩

클라우드는 무슨 구름?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는 충격이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을 이기다니! 알파고는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만든 *go*(棋: 바둑)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야심찬 자주회사(*holding company*)로 구글의 모(母)회사이다. 사실 구글이 돈 벌어 만든 모기업, 알파벳이 ‘유튜브’를 사들였고 이번엔 ‘루커(Looker)’라는 회사를 3조 원이나 주고 사는 모양이다.

‘클라우드’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뜯 구름 같은 이야기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에서든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라는 말이 생겨났다. 값비싼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필요할 때 내려쓰거나 쓴 만큼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하드웨어도 사서 관리하며 쓰는 것 보다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것을 서비스형 인프라스트럭처(*IaaS*)라고 한다. 소위 ‘호스팅’이라는 것이다. 비싼 땅을 사고 돈 들여 회사의 사옥을 건설하는 것 보다 편리한 위치에 있는 대형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며 지금 활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G 메일이나 Hot 메일 등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5기가(*giga*) 정도의 메모리를 준다. 약간의 사용료를 내면 100기가 정도를 받아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둘 수 있다. 이것은 메모리의 값이 내린 탓도 있지만 통신 속도가 빨라져서 남의 공간에 저장해두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마존은 ‘AWS’라는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이 원하면 컴퓨터와 프로그램과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

드에 앞서갔는데 미래를 훠뚫어 본 것이다. MS와 IBM도 일찍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구글이 뒤늦게 눈독을 들이고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기업은 물론 개인들까지 모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메모리)은 엄청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면 ‘루커’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기에 구글이 군침을 흘리는가? 만약 누가 1조원을 주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냥 국채를 사서 낮은 이자라도 받을까 싶다. 사업을 한다고 별였다가 날려먹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경기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상을 소상히 알고 시장을 예측하여 업종을 골라주고 경영전략을 세워주며 성과관리를 해 주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있겠는가? 꿈같은 이야기다. 구글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고 있다. 검색하는 사람들을 지역, 시간, 연령, 성별, 소득, 학력 등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거기에 맞는 전략을 편다면 사업은 대박날 것이다.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표 등으로 만들어 보여주면 금상첨화일 것이고 ‘루커’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는 기업이다.

IBM은 빨간 모자로 알려진 ‘레드햇’을 인수했다. MS는 ‘깃허브’를 인수했다. 애플은 ‘SAP’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왜 인수하는가? 직접 개발하는 것 보다 이미 기술과 능력을 인정 받은 신생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이 없고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 광통신 시대에 메모리는 커지고 가격은 내려갔다. 통신 속도조차 빨라지니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증강현



조기조 교수

실, 게임 등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 폭증하는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 센터는 마치 도서관의 서고처럼 엄청난 크기의 공간에 컴퓨터와 메모리를 계속 증설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기를 기동하고 열을 식히며 항온항습 등을 위하여 물과 전력소비가 많다.

최근에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그러자 다른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달려들었다. 전자파가 우려되어 반대했다는 데 기가 찰 일 아닌가? 클라우드는 뜯구름이 아니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 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21-4303-8822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내년 봄 남성복 핫 트렌드는 ‘우비’ 패션?



123 지난 6월 11일 저녁(현지시간) 이탈리에 피렌체에서 열린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 스프링 컬렉션 쇼. 윤경희 기자



456 지난 6월 11일 저녁(현지시간) 이탈리에 피렌체에서 열린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2020 스프링 컬렉션 쇼. 윤경희 기자

내년 봄엔 우비 스타일의 외투가 유행할 듯하다. 매년 6월은 패션 브랜드들이 다음 해 봄에 내놓을 신제품을 선보이는 달이다. 6개월 이상을 앞서 제품을 기획·준비하는 패션업계의 특성 덕분에 앞으로 유행할 패션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난 6월 11일·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세계 남성복 박람회 피티워모와 함께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두 곳이 잇따라 2020년 봄 시

즌 컬렉션 쇼를 개최했다. 이 두 브랜드의 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우비처럼 버석거리는 얇은 천으로 만든 가벼운 외투였다.

피렌체에서 시작한 럭셔리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지난 11일 오후 도심 중심에 있는 시뇨리아 광장에서 대규모 컬렉션 쇼를 열었다. 여성복을 담당하고 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폴 앤드류가 지난 2019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남성복 컬렉션이다. 폴 앤드류는 도심 광장에 수백 명의 관객이 앉을 수 있는 대형 무대를 설치하고 텀모델 바바라 팔빈, 영화배우 콜 스프리우스 등 스타들을 초청하는 등 새로운 남성복 발표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스타일을 보여왔던 의상은 젊은 디자이너의 부임과 함께 자연스레 젊어졌다. 무대에 등장

한 남·녀 모델들은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재킷 대신 가벼운 점퍼를 입었고, 봄 시즌의 대표 소재인 리넨·면 등과 얇은 스웨이드 가죽 상의를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하이 테크놀로지’ 컨셉트를 적용한 얇은 외투다. 짙은 보라색의 얇은 기능성 원단으로 만든 무릎 길이 외투를 입은 모델은 이날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가벼운 외투들이 선보였다. “서로 다른 세대간의 강력한 문화적 연속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한 폴 앤드류는 모델 또한 20대부터 50~60대까지의 다양한 세대를 기용해 여러 세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패션을 제안했다.

다음날인 12일엔 지방시가 피렌체의 오래된 대자택에서 쇼를 열며 봄 패션을 보여줬다. 장소가 된 ‘빌라 팔미에리’는 1880년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거주했던 곳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대규모의 정원이 무대가 됐다.

지방시 역시 이번 컬렉션에 많은 신경을 썼다. 지난 시즌까지 여성복과 함께 보여줬던 남성복을 분리해 독립적인 컬렉션 쇼로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영국 왕세자비 매건 마클의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이자 2019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아티스틱 디렉터 클레어 웨이트 켈러의 진두지휘 아래 선보인 남성복 컬렉션에선 역시나 젊은 감성이 느껴졌다.

여기서도 빠지지 않은 건 우비를 떠올리게 하는 얇은 소재의 점퍼 스타일 외투였다. 특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스트리트 무드를 내면서도, 하나만 따로 입거나 또는 스트 위에 덧입는 등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건 이 의상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이다. 클레어 웨이트 켈러는 패션지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초현대식 댄디즘”이라고 칭하며 “한국의 젊은 세대는 패션에 대한 열정이 크고, 문화적으로 잘 어울리며, 여러 액세서리를 훌륭하게 활용한다. 이들의 거리 문화를 본 후 내가 얼마나 80~90년대 스타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를 깨달았다”고 밝혔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제6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8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 · 패션 · 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 · 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원-원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

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 · 입선작 100여 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품명 : 꿈꾸는 코끼리 이수연 作



▲ 작품명 : 삶과 죽음 오창환 作

‘재외공관 경제외교강화’ ... 외교부, 코트라와 MOU



▲ 외교부, 재외공관 경제외교강화 코트라와 MOU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과 권평오 코트라 사장이 경제외교 강화를 위한 MOU에 서명한 뒤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1일 재외공관에서의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코트라와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경제통상진흥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을 통해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 1. 35mm Trimdek
- 2. 25mm Trimdek
- 3. 35mm Spandek
-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 5. Boltless-Seaming Type 55mm
- 6. Genteng Metal (기와)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930mm 35mm

1040mm 25mm

920mm 35mm

420mm 110mm

736mm 55mm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DIVISION

공장이 무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면...
EVEL HVLS 실링팬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대만족 하실 것 입니다. !!!



인도네시아 설치 사례



Jepara



Purwodadi



Serpong



Jepara



Jepara



Bogor Factory



Town Square Cilandak (J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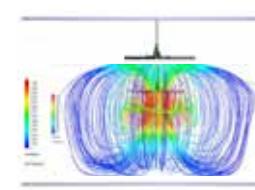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제품특징

- 이태리에서 원천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생산한 저속 고풍량, 산업용 명품 천장형 공조팬
- 전기료 부담 최소 (750W / 대형선풍기의 3배)
- BLDC 모터 정착 - 소음과 내구성 탁월
- 건기/우기철 1년 내내 사용 가능
(건기철 : 뛰어난 더운 공기순환과 냉방효과,
우기철 : 습도제거와 쾌적한 기류 제공)
- 보증기간 : 핵심부품인 모터류 20년 사용보증,
제품 무상보증기간 : 3년

제품스펙 (Fan 직경 4M 기준)

- 제품라인업 : 2.2 ~ 7.3M (Fan Diameter 기준)
- 산업용(공장) 추천 제품 : 4 ~ 5M (Fan Diameter)
- 설치 수직높이 : 6 ~ 8M (팬 위치와 바닥높이의 간격)
- 설치 수평간격 : 16~ 18M (설치 제품간의 추천 간격)



- * Weight : 85KG
- * Fan Speed : 100 Rpm
- * 380/220V 설치 가능
- * Control System : 유, 무선방식 가능
(무선리모콘은 옵션)

GRAND WI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 스마트 지점 Mr. PARK 0811 -850 -5540

2019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7/0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연회비
1	AAB	01.03			Rp3,500,000
2	DONGSON	01.03			Rp3,500,000
3	ZIBEN	01.10			Rp2,000,000
4	BAE EUNG SIK	01.16	Rp10,000,000		
5	MUARA TUNGGAL	02.14	Rp10,000,000		
6	POONGIN	02.14		Rp22,000,000	
7	DOOSAN CIPTA	02.15		Rp20,000,000	
8	DAEHAN GLOBAL	02.15		Rp20,000,000	
9	PETRASAKTI	02.19	Rp10,000,000		
10	TOP ABADI	02.26			Rp3,500,000
11	DAYUP INDO	02.26			Rp3,500,000
12	PARAN INTERNATIONAL	03.04			Rp3,500,000
13	DONG IL	03.04			Rp3,500,000
14	KNH GARMINDO	03.04			Rp3,500,000
15	WIWI	03.04			Rp3,500,000
16	YAKJIN JAYA	03.04		Rp20,000,000	
17	YOUNGHYUN STAR	03.04			Rp3,500,000
18	LEADERS WORLD	03.04			Rp3,500,000
19	SH GARMENT	03.04			Rp3,500,000
20	UNIVERSE DESIGN	03.05			Rp3,500,000
21	DREAM WEAR	03.05			Rp3,500,000
22	미상	03.05			Rp3,500,000
23	KSI INDONESIA	03.05			Rp3,500,000
24	ING	03.05		Rp20,000,000	
25	EINS TREND	03.05		Rp20,000,000	
26	TAE WON	03.05			Rp3,500,000
27	UNGARAN INDAH	03.05			Rp3,500,000
28	GAYA INDAH	03.05			Rp3,500,000
29	MAJUEL	03.05			Rp3,500,000
30	SHINWON	03.06			Rp3,500,000
31	MANITO	03.06			Rp3,500,000
32	SHINSUNG	03.06			Rp3,500,000
33	SEWON	03.06	Rp10,000,000		
34	TIGA KYUNGSEUNG	03.06			Rp3,500,000
35	YONGJIN	03.06			Rp3,500,000
36	JS JAKARTA	03.06		Rp20,000,000	
37	SOLVE IT	03.06			Rp3,500,000
38	FITI INDONESIA	03.08			Rp3,500,000
39	SEJIN GLOBAL	03.08			Rp3,500,000
40	SUKWANG	03.08			Rp3,500,000
41	SEYANG	03.08			Rp3,500,000
42	DONGYANG	03.08			Rp3,500,000
43	JMTECH	03.08			Rp3,500,000
44	DOORI	03.08			Rp3,500,000
45	GUNUNG SALAK	03.08			Rp3,500,000
46	CIPTA DWI BUSANA	03.08			Rp3,500,000
47	MINU GARMENT	03.11			Rp3,500,000
48	SAMSAM	03.11			Rp3,500,000
49	YOUN KWANG	03.12			Rp3,500,000
50	HESED INDONESIA	03.12	Rp10,000,000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연회비
51	DAEDONG	03.12			Rp3,500,000
52	GREEN TEX	03.13			Rp3,500,000
53	PERMATA	03.13			Rp3,500,000
54	DOOSAN GLOBAL	03.14			Rp3,500,000
55	미상	03.14			Rp3,500,000
56	GUNUNG ABADI	03.14			Rp3,500,000
57	BANGUN MAJU	03.14			Rp3,500,000
58	PAS	03.15			Rp3,500,000
59	MYUNGSEONG MACHINE	03.15			Rp3,500,000
60	TROS GARMENT	03.15			Rp3,500,000
61	INKORDAN	03.15			Rp3,500,000
62	YB APPAREL	03.18			Rp3,500,000
63	DAE SANG	03.18			Rp3,500,000
64	미상	03.19			Rp3,500,000
65	PAN PACIFIC	03.20		Rp20,000,000	
66	미상	03.21			Rp3,500,000
67	GG (GOLDEN)	03.21			Rp3,500,000
68	GG INDONESIA	03.21			Rp3,500,000
69	KG FASHION	03.22			Rp3,500,000
70	WIN TEXTILE	03.25			Rp3,500,000
71	JIN MYOUNG	03.25			Rp3,500,000
72	KAHO INDAH	03.26			Rp3,500,000
73	SIMONE	03.27			Rp3,500,000
74	JUNMIN	03.28			Rp3,500,000
75	C SITE	03.29			Rp3,500,000
76	미상	04.01			Rp3,500,000
77	KARYA TRI ABADI	04.02			Rp3,500,000
78	VILENE	04.09			Rp3,500,000
79	ISTANA	04.12			Rp3,495,000
80	BPG	04.29	Rp10,000,000		
81	MOLAX	05.02	Rp10,000,000		
82	YEONHEUNG	05.06			Rp3,500,000
83	JEIL	05.13			Rp3,500,000
84	FCL	06.24			Rp3,500,000
85	TEMPESTAR INTERNATIONAL	06.24			Rp3,500,000
86	AAM	06.24			Rp3,500,000
87	AMOS	06.25			Rp3,500,000
88	BLUE ROSE	06.25			Rp3,500,000
89	HANSOL	06.25		Rp20,000,000	
90	TIGA GUNUNG INTERNATIONAL	06.25			Rp3,500,000
91	HARAPAN	06.25			Rp3,500,000
92	BOSUNG	06.26			Rp 3,500,000
93	KORINA SEMARANG	06.27			Rp3,500,000
94	SJC	06.27			Rp3,500,000
95	LSP INDONESIA	07.01			Rp3,500,000
96	SGWICUS (WOOIN)	07.04	Rp 10,000,000		
97	INDO BOX	07.11		Rp 3,500,000	
98	KENLEE	07.09		Rp 3,500,000	
				Rp80,000,000	Rp182,000,000
					Rp274,995,000
					Rp 536,995,000
					GRAND TOTAL :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 l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Raya Cibarusah ,Lemah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tp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Lee / Mr Sunardi (Mobile Phone:+62-812-128-8816/+62-813-1984-6595)

외국에서 아플 때도 119로…1년간 재외국민 1천758명에 도움

지난해 11월 스위스를 여행 중이던 임신부 A씨는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겪었다. 낯선 여행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황했던 A씨는 한국의 119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중앙119구급상황 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 의학전문의는 현지 안과의사와 통화해 유행성 결막염으로 인한 증상임을 알아냈고 A씨는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이처럼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119응급의



료상담서비스'를 지난해 7월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 1천 758명(상담건수 1천 735건)이 이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평균 5명의 재외국민이 119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월별 상담건수도 지난해 12월 154건에서 올해 6월에는 21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비스 이용 유형은 의료상담이 602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569건(32.8%), 복약 지도 284건(16.4%) 등의 순으로 진계됐다.

다

전체 상담 요청자 가운데는 원양선박 선원·승객 등 해상 환자가 643명이었다.

해상환자를 제외한 상담요청을 지역별로 보면 일본에서 상담을 요청해온 경우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52명), 베트남(37명), 미국(21명), 태국(1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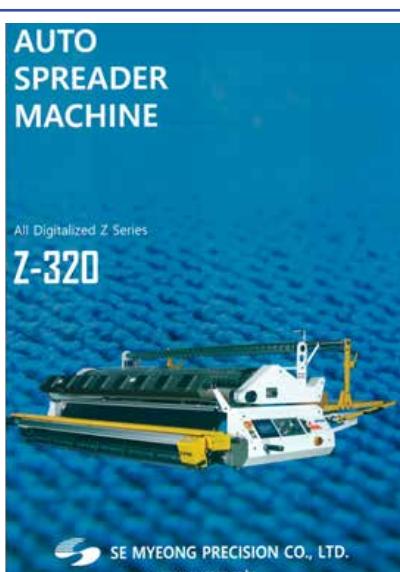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82-44-320-0119) ·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영사콜센터의 협조를 받아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문자도 보내고 있다. 현재 일
본, 중국, 동남아, 인도 등 34
여개국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전 세계로 대상

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금까지
산 없이 재외국민 11
료상담을 해왔으나
상담 증가에 대비해
확보하고 인력도 충
족 질을 높일 계획이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재외동포가 743만여명에 이르고 해외여행객 등 출국자도 연간 2천800만명을 넘으면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재외국민도 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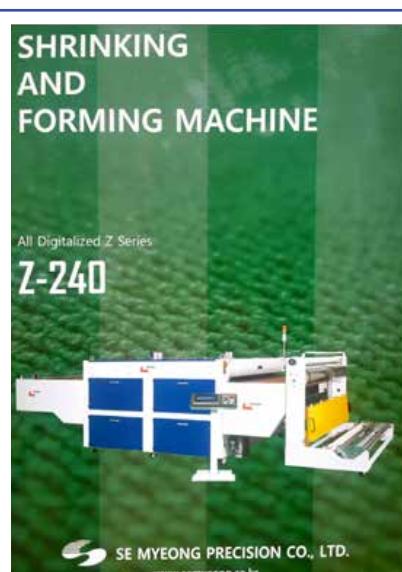
AUTO SPREADER MACHINE



세명정밀 자동 연단기

- 유일한 디지털 방식의 자동 연단기
 - 레이온, 스판 yd 당중량 100그램 짜 않은 원단도 연단이 가능한 유일한 연단기
 - 디지털 방식으로 우븐, 니트, 스판 원단 무장력으로 자동연단
 - 볼제 가방, 신발, 자동차시트, 골프 설치사용

SHRINKING AND FORMING MACHINE



세명정밀 원단 수축율 교정기계

- 스판, 레이온 원단 롤, 절별 LOT차에 의한 일정하지 않은 수축율 개선하여 재단 봉제시 일관성 보장
 - 디지털 방식으로 바이어, 스타일, 원단 LOT 수축율 자동 입력시스템
 - 운도 속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제어됨



세명정밀 전기보일러

- 용량별 3K, 5K, 10K, 20K
 - 성능과 품질, A/S 보장
 - 전기보일러의 HEATER
나쁜수질에 관계없이
장기간 사용가능 품질 보장



PERFECT BOILER

- 매연이 없는 친환경 보일러
 - 중폭 시스템으로 적은 연료 폐기물로 고온 고압유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미 중동아프리카, 설치 사용
 - 소각, 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스켈링, 소각기름 가스
열매보일러, 수리, 보수 스팀배관공사...재단테이블
제작설치

한국식품 틈새 공략…이슬람 시장 소주·돼지고기 수출 ‘훨훨’ 인도네시아 소주·UAE 돼지고기 … “비무슬림·외국인 겨냥 시장 확대”

돼지고기와 술이 금기시되는 이슬람 시장에 우리나라의 소주와 돼지고기 수출이 늘고 있어 이목을 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는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세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로의 소주 수출은 전년보다 10.1% 증가한 130만 달러(약 15억4천700만 원)를 기록했다. 올해는 1~3월 기준으로 27만8천만 달러(약 3억3천만 원) 상당이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껑충 뛴다.

aT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도시와 관광지 등에서 비(非)무슬림과

외국인에게 음주가 허용된다”며 “13%의 비무슬림 인구도 3천450만명에 달해 술을 소비할 수 있는 잠재 인구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aT는 이어 “사회 활동의 도구로 주류를 소비하는 젊은 도시인 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주류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소주는 그동안 한식당을 중심으로 주로 육류 요리와 함께 소비됐지만, 최근에는 현지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소주 칵테일 바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주 칵테일 바는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서부 자카르타 지역 등지에 10여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는 “소주는 현지에서 흔히 유통되는 맥주보다 도수는 높으



▲ 특별소비세, 수입자표시 및 주세 등 스티커가 붙은 채 인도네시아 한식당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소주. [연합뉴스자료사진]

면서 기호에 맞춰 여러 재료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 인기”라며 “소주와 요구르트로 만든

칵테일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UAE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기시된 국가지만, 매년 돈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무슬림 외국인에 한해서는 돼지고기 소비·유통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UAE 전체 인구 98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이 90%나 되는 탓에 가능한 현상이다.

aT는 “이는 돼지고기 소비가 원천 차단돼 유통기록 자체가 없는 이웃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조된다”면서 “외국인의 자본·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지 경제 상황상 비무슬림 외국인의 기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호텔과 전문 주류 취급점에서 돼지고기가 팔리고 있

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UAE의 지난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역대 최고치인 540여t을 기록했고,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올해 4월 기준 10t이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나 증가했다. 연말까지 40t 이상의 수출이 기대된다.

aT는 “한국산 식품이 건강하고 고급스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국산 돼지고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UAE의 돼지고기 수입국이 독일·캐나 등으로 한정돼 있어 국산이 점유율을 넓힐 여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 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